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월 9일 수요일(주간) 제 351 호

법석 조명 **혜암 스님**

"이 세상에 제일 수지맞는 일중의 하나가 공부하다 죽는 일인데 목숨 내놓고 정진하다보면 견성이 가까워오고 죽음은 멀어집니다."

"모든 인류는 절대평등한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자각하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2·13면

조계종 종정 혜암 대종사 圓寂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서
6일 오전 11시 영결식 … 종단장 봉행

대한불교조계종 10대 종정 혜암당 성관대종사가 원적에 들었다.

'가야산의 대목'이라 불리며 올곧은 수행을 이어온 혜암당 성관 대종사는 12월 31일 오전 10시 23분 주석처인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微笑窟)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게를 남기고 세수 82세, 법랍 55세로 입적했다.

1920년 전남 장성에서 출생한 혜암 종정스님은 46년 가야산 해인사에 출가한 날로부터 평생토록 눕지 않고 정진하는 장좌불와(長坐不臥)와 하루에 한끼만 먹는 일일일식(一日一食)을 하며 오로지 위법망구의 두타(頭陀) 의식주에 탐착하지 않고 청정하게 수행, 고행정진으로 참선수행에 몰두해온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승이었다.

일생을 청정한 수행자로 올곧게 살아온 혜암스님은 93년 성철 방장의 뒤를 이어 하인총림의 방장을 역임하였으며, 94년 4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99년 4월 조계종 제10대 종정으로 추대되었다.

스님은 평소 원칙과 소신이 뚜렷하여 당시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으로서 94년 조계종 개혁불사와 98년 조계종 종단사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1일 혜암 스님의 원적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자 스님들과 불자들의 추모 행렬이 해인사로 이어졌다.

해인사 궁현당에 마련된 빈소에는 원로회의 의장 법전 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종산 스님, 원로의원 성수 보성 청화 지관 스님, 범어사 조실 지유스님, 송광사 회주 법흥,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불자 1만4천여명(4일 현재)이 해인사를 찾아 헌향하고 스님의 열반을 추모했다.

또 각계인사들의 조문과 조전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불교협회(회장 도슬인)는 4일 "혜암선사의 유지를 이어받아 중한 양국불교의 전통우의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조전을 보내왔다. 민주당 김기재 연동회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직접 조문한 것을 비롯해, 천주교 주교회의도 조전을 보내 혜암스님의 입적을 애도했다.

스님의 법체는 1일 오후 3시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과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종산스님, 원로의원 성수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인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을 비롯해 70여 문도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관식을 마치고 궁현당에 모셔져 영결식이 열리는 6일까지 분향객들을 맞고 있다.

스님의 영결식은 6일 오전 11시 보경당 앞마당에서 조계종단장으로 치러진다. 2천여 장의 만장이 휘날리는 가운데 수만송이 국화꽃으로 장엄된 법구차에 의해 2㎞떨어진 연화대로 이운된 뒤 오후 1시 다비식이 봉행된다.

☞다비식 기사 다음호에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臨終偈

殘身本非有 (잔신본비유)
鐵牛含月走 (철우함월주)
石獅大哮吼 (석사대효후)
無心亦無所住 (무심역무소주)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도다
무쇠소는 달을 물고 달아나고
돌사자는 소리 높여 부르짖도다

◇혜암 스님 친필 임종게.

빛으로 다시 오소서 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는 사부대중의 행렬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 분향소가 마련된 해인사 궁현당에서 200여 스님들이 저녁 예불후 금강경 독경을 하고 있다. 사진= 고영배 기자

김대통령 추모 弔辭

김대중 대통령은 4일 혜암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는 조사를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97년 저에게 지도자의 덕목에 관한 큰스님의 말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홀연히 가시다니 그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만 느껴진다"며 "문득 저를 찾아 '방생'의 참뜻을 화두로 던져주시면서, 인간방생을 실현하라고 하신 말씀은 국정운영을 하는데 커다란 가르침이 되었다"고 추모했다.

김대통령은 또 "올해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해"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융성을 바랬던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모두 합심하고 단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원당암 재가선객들의 애도

"문없는 문을 타파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라고 항상 강조하셨던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이 12월 31일 원적에 들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 사무치고 간절하게 정진해서 낮인지 밤인지, 밥을 먹었는지 건너뛰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진하는 것을 출가자의 유일한 일로 여길 만큼 정진에 철저하셨던 스님의 빈자리가 임오년 벽두부터 너무나 크고 깊다.

특히 해인사 원당암의 재가선방인 달마선원에서 정진중이던 선객들은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린 길 앞에서 망연해 하고 있다. 달마선원은 재가불자들의 참선정진을 돕겠다는 혜암스님의 지비심으로 개설된 선방인데다 혜암스님이 재가자들과 함께 돈소 정진하면서 화두를 내려주고 공부를 지도해 온 곳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21년 전 혜암스님은 선불당에서 안거를 원하는 재가자들을 받아들여 함께 수행 정진했고 그것이 공부법을 지도하는 첫인연이 되었다. 스님은 재가자와 똑같이 하루 8시간 참선과 철야정진을 했으며 재가자들이 미혹을 거두고 밝은 본성을 깨우치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후 가까이에서 큰스님의 사자후를 접하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원당암은 재가자들에게 둘도 없는 수행처가 되었고 1995년 달마선원 개설과 함께 스님의 재가자 공부지도는 더욱 본격화되었다. 현재에도 정진 중인 103세의 공명화 보살을 비롯 연기영 동국대 법과대학장, 이창우 서울 허리우드극장 사장 등 1천 여명을 넘는 재가자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이제 달마선원은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안으로는 본심을 깨닫고 밖으로는 남을 도우라"고 강조하셨던 스님의 뜻대로 토요 참선, 청소년 참선 등을 통해 재가자들의 생활 속에 불교 수행의 요체를 전하는 재가 수련의 요람이 되었다.

불교가 재가불자의 삶 속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자칫 불교의 생명력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찍이 재가 불교의 중요성을 간파한 혜암스님의 선견지명은 더욱 빛을 발한다. 달마선원을 거쳐간 숱한 사람들은 생활 곳곳에서 혜암스님의 가르침을 21세기 속에 담아내며, 불법의 향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미희(부산 주재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법회참석 빈도**

1. 불자님께서는 사찰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①매주 ②월1회 ③월2회 ④년 4회 이하
2. 불자님께서는 한 달에 몇 번 절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4회 ②3회 ③2회 ④1회
3. 불자님께서는 일요법회나 초하루 법회 등 정기법회에 참석하십니까?
   ①꼬박꼬박 참석 ②가끔 참석 ③참석 안함 ④초파일에만 참석

설문 참여: 1월 10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52호 9면에 싣습니다.

관련기사

사설, 분향소·다비식 준비	2면
혜암 스님 수행 행장	3면
추모사·조사	4면
글과 그림으로 뵌 큰스님	12~13면
50년 시봉 103세 보살	23면

'사찰 환경·성보 보존 운동' 전개

불교 전국산악인聯

대한불교 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정인악)는 '사찰 환경 및 불교문화재 보존' 운동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산악인연합회는 40여 단위 산악회에 산사를 방문할 때마다 환경과 불교문화재 실태를 파악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냈다. 또한 단위 산악회에서 파악한 훼손사례는 봄·가을 열리는 임원 워크숍 자리에서 논의한 후, 해당 사찰과 행정 당국에 시정을 건의키로 했다.

전국산악인연합회는 '사찰 환경 및 불교문화재 보존' 운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15개 신규 산악회도 창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효행상 대상자 및 장학생 선발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등 밝히기 대장정 등도 연속 사업으로 진행한다.

오종욱 기자

종단협 16일 신년하례법회

불교계 종단과 신행단체들이 신년하례법회를 갖고 밝은 새해를 설계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16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26개 회원종단 간부스님들과 주요사찰 주지, 불교단체장, 불자의원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한다.

訃告

寂 圓

師觀大宗師 性 慧菴堂 正宗 宗溪曹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慧菴堂 性觀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불기 2546년 1월 6일 일요일(음 11월 2일) 오전 11시 31분(음 11월 17일 오전 10시 23분) 海印叢林 海印寺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永訣日時 : 불기 2546년 1월 6일 일요일(음 11월 2일) 오전 11시
■ 永訣式場 : 해인총림 해인사
■ 茶毘場 : 해인총림 해인사 연화대

慧菴堂 性觀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illegible]

■ 문의처 : 해인사 종무소 ☎(055) 931-1001~3

曹溪宗 宗正 慧菴堂 性觀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